



産業保健醫와 保健管理者(Ⅶ)

조규상

● 産業保健管理體制 ●

Q21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실시되는 정도관리(精度管理)란 어떠한 것인지요.

A. 건강진단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건수는 막대한 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가 취해지므로 만일 진단이나 측정에 착오가 있으면 그것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도관리는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수치는 측정시의 시료, 측정기기, 측정방법에 따라 매 측정시마다 달라집니다. 특히 생체(生體)측정에 있어서는 생체가 가진 특징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측정방법과 기기, 그리고 측정시간과 조건 등을 되도록 표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체측정에 있어서는 측정시마다 오차가 10% 나오는 것을 흔히 봅니다.

정도관리에 있어서는 되도록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측정기관 자체가 같은 시료를 가지고 측정을 반복하여 얻은 성적을 검토하는 내부정도관리가 있고 측정기관간의 측정치를 비교 검토하는 외부정도관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그 실시기준

이 노동부 고시로서 명시되었는데, 정도관리라 함은 검사능력의 향상과 진단 또는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능력, 방법의 측정 및 평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지도 및 교육, 기타 검사능력 향상에 필요한 관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의 정도관리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그리고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는 안전공단(산업보건연구원)이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는 특수검진기관의 연합회인 전국노동위생단체연합회에서 담당하여 ① 중금속 및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② 임상검사 ③ X선사진에 대한 정도관리를 하여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관에 대하여는 기술향상을 위한 연수를 하고 있고,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구성된 일본작업환경측정협회가 담당하여 측정을 위한 조직, 계획, 시료채집, 분석, 계산, 평가, 기록까지의 기술적인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로 정도관리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Q22 건강진단기관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의할 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A.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일반건강진단기관이 1,358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70개 그리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70개소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건강진단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택할 때는 그 지역내에서 선택함이 바람직

합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선택하기를 바라는데 과거에는 검사가격이 싸거나 적당히 검사해 주는 곳을 택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풍조는 쇠신되어야 하겠습니다.

검진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 ① 검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있는 기관
 - ② 검진은 2차검진까지 할수 있는 기관
 - ③ 과거 검진실적이 많은 기관
 - ④ 검진결과의 통지, 기록의 정리 등 사후관리가 잘 되어있는 기관
 - ⑤ 검진뿐 아니라 산업보건사업과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
 - ⑥ 정해진 검사요금을 받는 기관
- 등을 고려해 넣어 선택함이 바람직합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선택은

- ① 상근 작업환경측정기사 2인 이상을 가진 기관
- ② 국소배기장치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
- ③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 ④ 과거 작업환경측정의 실적이 많은 기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함이 바람직합니다.

Q.23 산업보건과 관계가 깊은 대학원, 학회, 협의회로는 어떠한 곳이 있습니까.

A.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톨릭대학교에 산업보건대학원이 있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보건대학원에 산업보건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회로는 산업의학회, 산업위생학회, 산업간호학회가 있으며, 산업의학회에서는 앞으로 산업의학전문의 제도(4년제)를 신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로서는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특수건강진단기관협의회,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가

있으며, 앞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위한 협의회도 정식발족할 예정입니다.

Q.24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기구와 조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A.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금부터 30년 전인 1963년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학술연구와 기술진흥을 위한 민간단체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보건관리자가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그간 본 협회는 각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산업보건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협회에는 11개 지부와 12개의 산업보건센터와 가지고 있고 4개의 협의회와 두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는 산업보건연구소, 전문위원실, 판독실, 전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1992년에 특수건강진단 209,755명, 일반건강진단 120,552명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12,707개소를 설치하여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직무교육으로는 의사 7,141명, 간호사 20,007명, 위생사 1,81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2,779개 사업장 근로자 279,855명에 대한 보건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한편 20개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학술조사연구도 하고 있는 한편, 국제기구인 ILO와 WHO 그리고 일본의 JAICA와 제휴하여 각종 연구와 학술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회 3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초에는 ILO와 WHO 후원하에 국제심포지움을 가질 예정입니다.

협회에서는 매월 산업보건지를 발행하여 약 4,000개 사업장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 이외에 단행도서와 VIDEO, 팸플렛, 포스타도 제작하여 홍보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 직원수는 의사 53명, 기술직(간호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등)386명, 기능직 41명, 일반직 138명, 기타 22명, 합계 6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